

카카오 대리운전사업 본격화

‘카카오 드라이버’ 출시... 운행 수수료 20% 제외한 모든 비용 자사 부담

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카카오가 대리운전사업에 진출하면 연간 10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업계는 큰 시장변동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7일 대리운전 앱 ‘카카오 드라이버’의 기사용 버전을 선보이며 대리기사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상반기 중에 일반 승객용 앱을 출시하며 대리운전 사업을 정식으로 발인한다. 카카오는 신규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7일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 신청은 2종 보험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리기사는 운전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로 등록하려면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면접이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면접은 서비스업 및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면접 전형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카카오드라이버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 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통과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은 기사용 앱을 통해 서비스 및 프로모션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가 시

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에 위한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출시에 맞춰 기사 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종 등록이 완료된 기사 회원 전원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실물 교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20%**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운행수수료는 전국 20%로 통일했다.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없었다. 요금 결제는 카드지동결제방식을 도입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인민수 기자



전주 ‘에코시티 더샵 2차’ 분양

포스코건설, 전용면적 84~117㎡ 총 702가구

포스코건설은 전주 에코시티 더샵 2차를 3월 분양한다. 에코시티 더샵 2차는 전주 에코시티 공동0블록에 지하 1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7㎡, 총 702가구로 조성되며, 지난해 분양 완료한 ‘에코시티 더샵’과 함께 총 1,428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이 단지는 에코시티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조성돼 뛰어난 입지 환경을 자랑한다. 축구장 규격의 약 28배, 덕진공원의 약 1.5배 규모인 중앙호수공원이 인접해 공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으며 개방감 또한 우수하다. 에코시티 주변으로 백석저수지, 천마산, 건지산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각 1개씩 조성 예정돼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도서관과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KTX 전주역이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대로와 과학로

를 이용하면 20분대로 인근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전주영양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에코시티는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대 199만㎡ 부지에 1만 3,100여 가구, 3만2,9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와 교통, 휴식, 교육,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특화 생태도시로 건설되며, 오는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에코시티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분양에서 10만 개가 넘는 1순위 통장이 몰리면서 지방 부동산 열기를 주도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의 ‘에코시티 더샵 (1블록)’을 비롯해 4개 블록 총 2,089가구가 일반에 공급됐으며, 총 108,359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단기간 분양 완료했다. 에코시티 더샵 2차의 모델하우스는 전주 덕진구 송천동2가 117-9번지에 조성되며, 3월 초 오픈 예정이다. (문의전화 1661-0074) /신광영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긴급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3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8억원 등 총 2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자금은 기존 전라북도육성자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ta.or.kr) 또는 전화(063-711-2022)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익산지방국토청 전주관리사무소 도로 안전 시설물 대진단 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4월30일까지 도로 등 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안전대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 중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로서 도내 15개 시설이 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만경교, 금강갑문교, 경천교, 신리교, 월암교, 장선교 등 교량 10개소와 솔밭터널 1개소, 소양 신원, 구이항, 운주 장선 등 절토사면 4개소이다. /신광영 기자

전주 롯데백 ‘룩옵티컬’ 입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룩옵티컬’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룩옵티컬 브랜드는 중앙대학교 앞에서 6평의 작은 안경점에서 시작, 2011년 ‘안경은 얼굴이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안경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안경 프랜차이즈다. 특히 안경을 통해 매일 새로운 얼굴과 만나는 ‘안경 성형’을 메시지로 내세운 룩옵티컬은 1만2,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경량성, 세련된 디자인으로 기존의 안경과 차별화를 둔 점이 특징이다. /신광영 기자

신보-금융위 성과주의 이행 MOU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금융위원회는 7일 성과중심 문화혁신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보수, 평가,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있어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신뢰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조기 도입 시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신보는 MOU체결에 앞서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한 평가 및 합리적인 보수 체계 개편을 위해 외부 컨설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정영수 기자

“경영이익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겠다”

고재찬 제8대 전북개발공사 사장 취임



전북개발공사 제8대 사장에 고재찬(59·사진) 전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이 취임했다. 고재찬 사장은 “전라북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공공복리 증진과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이익을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겠다 경영전략은 있다.
 =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 실현 등 4대 핵심 경영전략을 마련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라면.
 = 기존의 도시개발, 임대주택 등 지방공기업 고유목적 사업과 더불어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관광분야 등 신규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연관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과의 소통도 중요한다.
 = 그렇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경영 실천과 사회환원 경영을 확대할 생각이다. 고객 관련부서를 집적화해 종합적인 고객민족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고객민족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경영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회환원사업 이외에 보다 다양한 경로의 사회환원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역업체 참여율과 지역내 생산자재 사용률을 최대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 있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사장으로 조직 재정비 계획은.
 =있다.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정 핵심과제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예컨대 유연근무제 확대, 가족 등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 행복한 가정, 활력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양한 공직 경험을 전북개발공사에 잘 접목시켜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성숙한 전북개발공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신광영 기자

이스타항공, 신입직원 워크숍 전주 개최

이스타항공은 2016년 상반기 신입직원 워크숍을 7~8일 이틀간 전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입직원 워크숍은 ‘언론에 비친 이스타항공과 미래’, ‘올바른 인재양성과 항공인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지역 명사 특강과 안전진료음치치료사의 웃음과 행복의 이스타항공 등 다양한 강의와 직무교육으로 이뤄진다. 먼저 7일에는 전주예약센터를 방문해 예약, 발권 등 현장교육과 도

침을 방문해 이형규 정무부지사의 환영 인사와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들었다. 이어 8일에는 전주진통문화관에서 조봉업 전주 부시장으로부터 있는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특강을 받는다. 이스타항공 김정식 대표는 “이스타항공은 다양한 지역발전형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